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인면수심’인가 ‘천인공노’인가

교수신문이 작년에 꼽은 사자성어는 ‘혼용무도’...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도리에 어긋나는 짓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다.

아 몰랐다. 서울대 의대생들과 선배 의자들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며 바로잡으라’고 성명서를 내고 조사위원장이 자기라면 ‘외인사’라고 적었을 것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선하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못 고치겠다고 할 줄이 아 몰랐다.

이상하게도 모든 수상한 일들에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어른거린다. 말도 안되게 타락한 진성준 검사장의 비리 사건이 났을 때 설마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이 수상할 줄이야 몰랐었다.

담담 래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주치의와 부원장과 협의했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했다가 서울대 병원장으로 깜짝 위촉된 사람에 의해 발탁됐을 줄이야 설마 몰랐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뇌출혈로 삼백여 일을 의식불명으로 있을 때 설마 경찰이 사과 한 마디 안 할 줄이야 몰랐다.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연장되지 못하고 해체될 줄이야 정말 몰랐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비용 세금 타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끝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못했고 인양 시기는 자주 늦어지고 세월호 절단이라는 변수가 거론되고, 세월호 특위의 조사 활동에는 공무원들의 비협조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감에서는 이중 어느 한 사람도 증인 채택을 못했다. 새누리당은 뚝뚝 뚝뚝 증거인 채택을 방해했고 이정한 대표는 ‘당무수석’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단식까지 했다.

점입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이 아닌가 싶은 ‘최순실’의 본격 등장이다. ‘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의 초고속 설립과 전경련이 나서서 무려 800여 원을 대기업에서 몰아준 사건이다.

사투하고 추잡하고 추악하고 썩썩하고 비열하게 반칙과 특권이 자행되고 변칙과 특혜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사립의 얼굴을 잃고 있다.

차은택은 창조융합경제담당 공직을 맡았었는데, 그 간택을 위해 시행령까지 스피디하게 고쳤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문화행사들을 도맡아 기획했고 그가 연관된 ‘늘품제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연까지 했다.

의료칼럼



이순 태영21병원 인공신장실 외과 원장

혈액투석과 친해지기

진행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행되면서 급격히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초기진단이 중요하다.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망가져도 다른 한쪽만으로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장이 둘 다 망가지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건강한 신장을 하나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10mg/dL 정도, GFR 10mL/min 이하가 되면 신기능이 5~10% 정도만 남은 상태로 투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회장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미리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원칙이듯이, 잔여 신기능이 남아있을 때 투석을 시작하면 환자가 투석치료를 더 잘 견딜 수 있고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혈액투석은 투석기(인공 신장기)와 투석막을 이용해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뜻한다.

특히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투석시작 6~8주 전에 동정맥류 장치를 준비해야 하므로 그 이전부터 투석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고칼륨혈증, 폐부종, 호흡곤란, 오심, 구토, 요독증에 의한 심와막염이 있으면 초기에 투석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기고

가을은 진정 을(乙)들의 계절인가



임영열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무릎을 꿇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들의 낮은 삶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의 눈빛이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가을은 을(乙)의 계절이라고. ‘내 앞을 낙엽 한 잎이/ 바람에 불려갑니다/ 방랑과 청춘과 사랑도/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나뭇잎은 궤도도 없어/ 바람결만 따라서 헤맬니다/ 숲 속이나 늪 속에 비로소 멈춥니다’(헤르만 헤세 ‘불러가는 나뭇잎’)

세상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단단해져만 갑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은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양의 오만 회동의 초호화만 매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송로버섯, 삭스핀 점, 캐비어 셀러드, 바닷가재, 능성어, 한우갈비 등이 매뉴였다고 하더군요.

이 같은 구절이 가슴을 칠 때 시인은 “가을을 타고 가을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채 아니, 궤도도 없이 이리저리 불려 다니다가 ‘숲’ 아니면 ‘늪’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추풍낙엽의 암시에서 이들의 삶을 유추해 내오는 곧바로 시인은 울가웬엔 을의 자리에서 마음의

그렇네요.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서 어느 곳에서는 배불러 죽겠다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세상 후미

이 나타나기 전에 투석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근엔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해 공급되는 초순도의 투석용수를 사용해 가장 효과적인 투석치료를 알려진 혈액여과투석법(online-HDF)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유량 혈액투석을 경제적 부담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 투석법은 고효율, 고유량의 투석막 사용으로 잔여 신기능의 유지, 생존율 향상, 합병증 감소 등 효과적이고 안정적인이어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

투석환자에게 동정맥류혈관은 생명선과 같으므로 외과전문의와 협진해 혈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투석환자나 당뇨환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식이요법과 영양상태이다. 기본적으로 혈액투석을 시작하면 열량섭취가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한 간식으로 과일과 사탕, 꿀 등을 권유한다.

는 고기, 생선, 콩, 두부, 달걀, 우유 등이 권장된다.

무조건 적게 먹고 음식을 가리게 되면 영양실조로 더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밥 그릇과 컵은 작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국물을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 그리고 얼음조각을 입에 넣고 빨아 먹거나 과일을 얼려서 조금씩 녹여 먹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투석을 하는 경우 주 2~3회, 매회 4~5시간을 투석실에서 보내야 한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과 인테리어, 그리고 대기 시간 동안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TV나 책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게실 구비가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조언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혈액투석은 평생을 치료해야 하므로 의료진과 환자가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 투석환자에게 동정맥류혈관은 생명선과 같으므로 외과전문의와 협진해 혈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필수이다.

“나는 흡수저란 말이 싫다. 부모님이 그 단어를 알게 될까 봐 죄송하다. 나는 부모님에게 건장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훈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청년의 마음이 애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삶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자식에게 우는 모습 들을까 봐 이불 뒤집어쓰고 숨죽여 우는 한 애비가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불안하게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쓸러 다니는 이 시대 수많은 울들며 그레도 길은 울들이 만들었고 그길은 역사가 되었음을, 인간 본래됨의 근원을 잃지 않는 따스한 가슴들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오늘같이 가을바람이 스산한 날에는 세상 잠시 다 잊고 시장에 가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꿇여주는 따뜻한 국수나 한 그릇 하면서 동병상련의 정이나 느껴보시지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이의/ 추운 발소리를 듣는 애비는/ 잠결에 귀로 운다”(김주대의 ‘부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불안하게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쓸러 다니는 이 시대 수많은 울들며 그레도 길은 울들이 만들었고 그길은 역사가 되었음을, 인간 본래됨의 근원을 잃지 않는 따스한 가슴들이 있음을 믿읍시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이의/ 추운 발소리를 듣는 애비는/ 잠결에 귀로 운다”(김주대의 ‘부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불안하게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쓸러 다니는 이 시대 수많은 울들며 그레도 길은 울들이 만들었고 그길은 역사가 되었음을, 인간 본래됨의 근원을 잃지 않는 따스한 가슴들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오늘같이 가을바람이 스산한 날에는 세상 잠시 다 잊고 시장에 가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꿇여주는 따뜻한 국수나 한 그릇 하면서 동병상련의 정이나 느껴보시지요. 신경림 시인은 말했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고..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여기저기 들어선 전망대 헬세만 축낸다니

지방자치체 시작과 함께 일선 시·군에서는 각종 시설물 건립 붐이 일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앞세우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경쟁적으로 전망대를 건립한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관광객을 유치해 빈약한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망대나 타워를 건립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을 들여 건립한 대부분의 전망대는 지금 헬세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국비 71억 원, 군비 59억 원 등 130억 원을 들여 2015년 완공한 진도타워의 경우 지난해 1억3800여 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지만 5900여 만 원의 적자를 보였다. 34억4000만 원을 투입한 땅골 전망대(2002년 준공) 역시 같은 기간 7억7000여만 원이 운영비로 쓰였지만 입장 수입은 2억8000여 만 원에 불과했다.

국비 71억 원, 군비 59억 원 등 130억 원을 들여 2015년 완공한 진도타워의 경우 지난해 1억3800여 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지만 5900여 만 원의 적자를 보였다. 34억4000만 원을 투입한 땅골 전망대(2002년 준공) 역시 같은 기간 7억7000여만 원이 운영비로 쓰였지만 입장 수입은 2억8000여 만 원에 불과했다. 결국 군은 5억 원에 가까운 자체 재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영세 업체 대부분... 이름뿐인 광주문화산업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 정책이 걸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10년째 신성장동력으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문화산업 사업체 중 5인 미만 업체 수 비중은 70.3%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연매출 1억 원 미만 업체 수 비중도 50.5%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전국의 평균 업체당 종사자 수 7.3명, 업체당 매출액 9억 원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과 관련 분야 고용 창출도 부진할 수 밖에 없다.

無 等 鼓			
<p>올해, 가수 김원중을 간담회에서 두 번 만났다. 1985년 '바위섬'으로 데뷔한 후 음악 인생 30년을 맞은 그의 행보가 부실힌다. 가수가 지역에서 오롯이 30년을 버티 내며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건 예상일이 아니다.</p> <p>첫 만남은 30주년 기념 6집 음반 발매 자리였다. 당시 인상적이었던 건 “노래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라는 말이였다.</p> <p>김원중은 광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아 아티스트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두 번째는 지난 11일 열린 콘서트 ‘With 광주’ 간담회였다. ‘음악 인생 몇 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는 수도 없이 열린다. 한데, 이번 콘서트는 100인의 시민(250명까지 늘었다)이 한마음이 돼 ‘광주의 축제’로 꾸미는 전무후무한 형식이였다. 공연장이 김대중컨벤션센터인 점과 티켓 가격(11만 원~7만 7000원) 때문에 두 번 높았다. 지역 가수가 상상도 못할 ‘무모한 도전’을 시작 한 건 100인위원회였다. 이날, 조직위원장을 맡은 강위원 씨의 모습이 인상 에 강하게 남았다. 가수보다 더 흥분하</p>			
김원중과 광주			
<p>격려하고, 양보도 하는 ‘선배’였으면 좋겠다. ‘바위섬’이 실린 음반을 제작하고 ‘직녀에게’를 작곡한 박문옥, 아름다운 곡과 가사를 써 준 한보리 등 선배가 없었더라 지금의 그는 없었을 거다.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에 함께 한 많은 동료들도 마찬가지다.</p> <p>요즘 시대를 건다 보면 버스킹 공연을 하는 이들이 많이 눈에 띈다. 클럽에서도 공연이 이어진다. 고군분투하는 지역 후배 뮤지션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 주는 그를 자주 보고 싶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미은 문화1부장 mekim@</p>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